



고창군의회 차남준 의원,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고창군의회 차남준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최근 전라북도 시군의회지방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차남준 의원이 이번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차남준 의원은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모범적인 상임위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1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창군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 '찾아가는 설명회' 호응

지역 고교 찾아가 설명회·레크레이션 진행

전북대학교 학생 홍보대사들이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고교를 직접 찾아 입시제도와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17명의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들은 지난 8월 28~30일 3일 동안 전주제일고와 전라고, 해성고 등을 잇달아 방문해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설명회와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전북대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레크레이션 등이 이어졌다. 기존의 딱딱한 설명 위주의 입시설명회에서 벗어나 전북대의 장점과 매력을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알렸다는 점에서 참여 고교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전주제일고의 한 학생은 "대학에서 나오는 입시설명회라고 하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니, 오빠와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좋았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전북대에 더 큰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강정석 홍보실장은 "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 설명회가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면 우리대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다"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대의 우수성을 다양한 형식과 채널로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비전대,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31일 '2023년 LINC 3.0 사업 산학연계 교육과정 수기 및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학연계 교육과정 참여학생의 경험 공유 및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의 공유·확산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V-log, UCC 등 형식)를 제작해 출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상 작품은 목표 및 노력 공감성, 유익성, 파급성, 기타(작품의 구성 및 표현력 등) 다양한 영역을 토대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 시상상에는 선정된 총 1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대상에는 치위생과 권예진 학생의 '치과 현장실습 Q&A'란 주제로 산학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느낀 점 등을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7명 교수, 영광의 정년기념식·훈포장 전수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31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8월 31일 자로 정년을 맞은 교수들에 대한 정년기념식 및 훈포장 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수는 남해경 교수(공과대학 건축공학부)를 비롯해 이병훈(공과대학 고분자·나노학과), 김민수(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부), 김신규(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손인진(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고영호(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안동언·이효종·조기환(공과대학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이병석(공과대학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김성경(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김용현·김철수(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박경희(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박동천(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한길식(상과대학 회계학과), 김동찬·김원호·김한욱·최하영(의과대학 의학과), 최상기(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안정근(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정성식(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장문택(치과대학 치의학과), 유문희(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김창환(환경생명자원대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안병용(환경생명자원대학 한약지원학과) 등 총 27명이다.



이날 정년기념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정년퇴임 교수 및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강단을 떠나는 교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송덕시를 통해 "정년을 맞은 교수님들의 공로가 있었다면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헌신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올 하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강당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한국젠더문화연구원 양동욱 원장을 강사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 간 상호존중 실천과 수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없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맞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31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김도영 원장과 김지성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제행사, 워크숍, 세미나, 축제 등 개최 공동협력 및 지원 △민속 분야 등의 무형유산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국내외 네트워킹 △학술 출판물 등 양 기관의 사업 관련 정보와 결과물의 공유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성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자"며 "무엇보다도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대중적 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상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김도영 원장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의 뿌리인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데 보폭을 넓힐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학부모 활동단 공병 재활용 실시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 학부모 커뮤니티 모임인 업사이클링 활동단이 최근 부안 생활문화센터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공병 재활용 활동을 실시했다.

부안 관내 학부모 업사이클링 활동단 회원과 자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에서 사용하고 가져온 공병을 활용한 디퓨저 만들기 체험을 했다.

특히, 회원들은 이번 체험활동과 독서토론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자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방법을 모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시 산업·농공단지 협,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김제시(시장 정성주) 산업·농공단지 협의회는 31일 김제 시민운동장을 방문해 전북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각 시·군 체육회 관계자에게 4백만 원 상당의 이음음료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제시 산업·농공단지 협의회장들과 전북도 및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위문품은 전북도민체전에 참여하는 각 시·군 선수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농공단지협의회는 지난 7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년만에 김제시에서 개최되는 전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민체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3 진안군장애인하마체육대회 성료

진안군은 2023 장애인하마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진안군 문체체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진안군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등에서 350여명이 참가해 장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화합과 더불어 선진 체육 보급을 위해 오전에는 도민체전 종목(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등)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레크레이션 체육, 마술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체육의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했다.

전춘성 진안군장애인체육회 회장(진안군수)은 "대회에 참가해주시는 참가자와 대회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호원대 씨름부, 전국대회 동메달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제 37회 전국시·도대항장사 씨름대회에서 대항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29~30일 2일간 경남 창원 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항부 개인전 청장급(-85kg)에 출전한 박중운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중운(스포츠무도학과 3년) 선수는 32강 경연에 진현준 16강 목원대 황태민, 8강 단국대 김영기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해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형권(스포츠무도학과 교수) 감독은 "박중운 선수는 대학 진학 후 첫 입상이다. 씨름부 전체가 축하를 전한다"며 "항상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며 리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농협, '2023년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광동열)은 31일 무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신규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교육원 안희호 강사를 초청하여 '신규조합원의 역할과 자세, 농협사업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농협 광동열 조합장은 "무주농협 가족이 되어 주신 조합원님께 감사드리고"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청백리 체험... 청렴의식 함양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용표)는 지난 30일 임직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광주광역시 관산구에 위치한 월봉서원에서 선비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유생복 체험, 옛책 만들기, 청렴사색 경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선현들의 청빈한 삶의 발자취를 체험하며, 청렴정신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뜻을 밝혔다.

부안지사는 앞으로도 '청렴슬로건 공모', '청렴퀴즈' 등 다양한 직원참여 프로그램으로 공직자로서 청렴의식 함양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